



제 47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을 화려하게 물들이며 힘찬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따사로운 봄햇살속에 승촌보를 돌아오는 42.195km 구간에서 뜨거운 순위경쟁을 벌이며 겨우내 잠되었던 남도의 들녘을 깨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선거홍보물 '50억 반짝특수' 통째 서울로

광주·전남 총선후보 대부분 지역 외면

뿔난 인쇄인들 "낙선운동 펼칠 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더니 선거홍보물을 서울에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타 지역에 홍보물을 맡긴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칩니다."

광주·전남지역 인쇄인들이 화났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지역경제를 외면한 채 서울에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타 지역에 홍보물을 맡긴 후보자들의 낙선운동을 결의했다.

인쇄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대 총선 때 이 지역 상당수 후보들

이 선거홍보물인쇄를 서울에서 했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매년 두차례 이상 발행하는 수 만부의 의정보고서와 각종 인쇄물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후보들이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 지난 28일 오후 축구간 광주시 등구 남동 '인쇄골목'은 냉랭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반짝 선거특수'를 기대했지만, 홍보물 시안과 용지를 거미쥐고 바쁘게 뛰어 다니던 풍경은 사라졌다.

지역 인쇄업체의 선거특수가 사라진 것은 서울 등 대형인쇄업체에

보를 비용은 38억 ~ 47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인쇄업체는 이 돈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선거홍보물 인쇄량은 유권자 수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도 걸림돌이다. 반면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은 제한이 없다. 예비후보들이 SNS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인쇄업 쇄락에 선거특수마저 사라지면서 문을 닫는 인쇄업체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07년 460곳에 달했던 광주·전남 인쇄업체는 현재 250곳에 불과하다. 5년새 절반 가까이 폐업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1만 건각 봄 깨우는 희망질주



화보 12면·관련기사 13·14·15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새봄을 열었다.

광주일보·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제47회 3·1절 광주일보 전국 마라톤대회가 1일 옛 전남도청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동호인·직장인·가족 등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1만여 마라토너들은 봄 햇살의 마중을 받으며 화합과 희망의 레이스를 펼쳤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른 대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축사에 이어 3·1 정신을 기리는 참가자들의 '만세삼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른 대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축사에 이어 3·1 정신을 기리는 참가자들의 '만세삼창'으로 분위기 고조됐다.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김수용·이정숙씨 남녀 풀코스 우승

오전 8시30분 옛 전남도청에서 출발총성이 먼저 울렸다.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을 출발점으로 하는 '명품 풀코스'가 부활한 것이다. 이어 오전 9시 축포가 월드컵경기장 하늘에 쏘아올리면서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질주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의 힘찬 함성 속에 시작된

질주는 10분 간격으로 10km·5km 주자들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울렸다. 봄날의 질주를 위해 나온 전국 달립이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나온 가족들로 월드컵경기장은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아빠 품에 안겨 결승선을 들어온 2살배기 아기와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최고령 고재신(77)옹까지 남녀노소가 함께한 화합의 질주였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월드컵에 완주를 한 이들도 있고, 줄넘기를 하며 또 자신의 고장을 알리는 각종 깃발을 들고 42.195km를 달린 이들이 있어 대회는 더욱 빛이 났다.

풀코스의 남자 우승은 2시간37분23초만에 결승선을 통과한 김수용(37·대전)씨에게 돌아갔다. 천안에서 찾은 이정숙(47)씨는 2시간56분35초의 기록으로 풀코스 여자부문 2연패를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교통통제 협조 감사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1일 일부 지역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참아가며 제 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광주시·전남도·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육상경기연맹·광주지방경찰청·광주동부경찰서·광주서부경찰서·광주남부경찰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1월 24일 ~ 3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 정회원 - 모집인원 : 11명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인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회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자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일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 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 12명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자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일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 주중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 48명

▶ 입회금액 :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 개인회원 1인 : 그린피 면제(회원회원으로서) / 완납시 : 모든 특전

※ VIP 멤버, 휴먼·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딥보내우 70%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 20% 납입후 1개월내 진급원납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

